

축 사

오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 한국조직위원회 발족행사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 폭염, 홍수, 태풍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변화 현상은 식량생산 감소와 물 부족 현상을 낳고 가난한 이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안보와 더불어 우리 인간과 지구상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직까지 기후변화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 또한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삶 또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기후재난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급율이 낮은 식량문제에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책임은 더욱 더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고 그들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 바람, 나무, 풀, 흙과 같은 자연이 파괴된다면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이윤 획득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만 여

겨 왔습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상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위기는 이처럼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분별한 개발과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은 단순히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춘각을 다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자연을 존중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해온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전통과 시민사회가 만나서 기후변화위기를 이야기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가 종교계와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조직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